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자기 번뇌를 없애야 한다.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1월 1일)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속환사바하시어 다시 함께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 · 다비식 봉행

신중일 · 윤호섭 기자



조계종은 12월 3일 조계사 일원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식을 종단장으로 봉행했다. 사진은 자승 대종사의 법구를 다비장인 용주사로 이운하기 위해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는 모습.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지난 11월 29일 원적에 든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의 생전 원력인 전법선언 '부처님 법 전합시다' 가 서울 종로 조계사 도량에 울려 퍼졌다. 자승 대종사가 끝까지 놓지 않던 화두이자 원력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 는 사부대중에게 대종사가 마지막으로 보이는 법문이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2월 3일 서울 종로 조계사 일원에서 '제33 · 34대 총무원장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식' 을 종단장으로 봉행했다.

명종과 삼귀의례로 시작된 영결식은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영결법요와 함께 용주사 前 주지 성법 스님이 헌향을, 용주사 성보박물관장 성월 스님이 헌다했다. 이어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유정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이 자승 대종사 영전에 헌화하고 삼배를 올렸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행장 소개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의 죽비로 이뤄진 추도입정 이후에는 자승 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문이 이어졌다. 생전 육성 법문은 자승 대종사의 2013년 총무원장 신년사, 2017년 신년간담회, 2013년 제34대 총무원장 취임사, 2023년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사로 이어졌고, 사부대중은 대종사가 제시한 전법과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준비된 영결 법어 대신 즉석에서 법문을 설했다. "자승 스님! 자승 스님! 자승 스님"을 크게 부른 성파 대종사는 "지난 2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간다하여 이 자리에서 잘 다녀오라고 격려했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영결식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슬퍼했다.

성파 대종사는 "우리 인생을 사바세계라고도 하고 고해라고도 한다. 자승 스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살면서 많은 교훈을 남기셨다"면서 "사바세계의 육신을 버리고 법신으로 안양국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자승 대종사가 남긴 유훈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 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천축국(天竺國) 40여 일에 걸친 가행정진길에는 아직도 발자국이 그대로 지워지지 않았고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에서 100일동안 앉았던 좌복에는 여전히 따스한 기운이 식지 않았다"며 "그 뜻과 의지를 오롯하게 이어받은 상월결사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대화상의 수행력과 유훈이 하나로 결집된 '부처님 법 전합시다' 라는 전법포교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자승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 법을 전하신 자승 대종사의 삶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원력의 씨를 뿌리자는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살피고 국민의 삶 구석구석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추도사에서 자승 대종사를 "한국불교에 전법을 화두로 던진 '포교의 화신' "이라고 평가하며 "한국불교의 중흥과 전법도생에 대한 대종사의 원력은 마침내 소신공양 자화장에 이르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중들은 대종사가 스스로 다비한 간절한 자화장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광 대종사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시여! 속히 속환사바하여 다시 함께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라고 크게 외쳤다.

불교계 지도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조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자승 대종사께서 쌓아놓은 수행과 전법의 초석이 첩첩이 큰 산을 이뤘다"면서 "이제 우리들은 스님께서 열어 보이신 길을 따라 원력 불사를 하나하나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다비식. 연화대에는 생전 대종사가 강조한 '부처님 법 전합시다' 문구를 내걸었다.

총본산 조계사서 종단장으로 엄수
전국 각처서 사부대중 1만명 운집
자승 대종사 생전 육성법문 '뭉클'
종정예하 "많은 교훈 남겼다" 치하
尹 대통령 "대종사 원력 이어갈 것"
대중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다짐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은 "때로는 엄격한 스승처럼, 때로는 도반처럼 대중을 이끌어 주시던 대종사께서 이렇듯 홀연히 해탈의 길에 드시니 우리 후학들은 어느 하늘 아래 기대어 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합니까"라고 애도했으며,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일오 스님은 "화중생련(火中生蓮)으로 미진(微塵)을 다하는 날까지도 일체유위(一切有爲)가 포영환몽(泡影幻夢)이라는 심지법(心地法)을 설파하심에 우리 종도들은 합심동덕으로 결계하고 파사현정으로 불교중흥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이후에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승 대종사 영전에 헌화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 익산 도후 대종사 등 원로의원 스님들과 밀운 부림 대종사, 수봉 세민 대종사, 학산 대원 대종사 등 명예원로의원스님들,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 등이 자승 대종사에게 꽃을 올렸다.

또한, 이날 헌화에는 자승 대종사가 총무원장 재임 당시 도움을 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 안산 단원고 조은화 · 허다윤 학생 어머니를 비롯해 김득중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장, 김승하 KTX여승무원 노조 지부장,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도 헌화에 동참했다.

자승 대종사의 육성으로 전법선언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제창하고 전법 원력을 되새기며 영결식은 마무리됐다.

문도를 대표해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영결식 참석 대중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후 자승 대종사의 법구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나와 8년간 총무원장으로 재임했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을 지나 조계사 일주문에서 노재를 지냈다. 만장과 영정을 앞세운 대종사의 법구는 우정국로와 공평사거리로 이운해 다비식이 엄수되는 용주사로 이운됐다.

용주사로 이운된 대종사의 법구는 대웅전 앞을 지나 다비장으로 나아갔다. 다비장은 종단 원로대덕 스님들과 주요사찰 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 재가불자까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웠다.

거화 의식은 30여 명의 스님이 함께 자승 대종사의 법구를 향해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를 외치며 시작됐다. 연화대 불길은 금세 솟아올랐고, 사부대중은 합장한 채 사바세계를 떠나는 자승 대종사의 마지막을 추도했다.

한편 추모일정은 12월 5일 봉은사 · 용주사 초재를 시작으로 △2재 봉은사(12월 12일) △3재 봉은사(12월 19일) △4재 봉은사(12월 26일) △5재 봉은사(1월 2일) △6재 봉은사(1월 9일) △7재 봉은사 · 용주사(1월 16일) 순으로 진행된다.

大韓佛教曹溪宗 第33代 · 第34代 總務院長

海峰堂 慈乘 大宗師 宗團葬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大韓佛教曹溪宗 第33代·第34代 總務院長 海峰堂 慈乘 大宗師를 追慕하기 위해 弔問하여 주신 大統領께 感謝드리며, 12月 3日 한국불교총본산 曹溪寺에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이웃宗教·宗團 여러분과 四部大衆의 雲集 속에서 大韓佛教曹溪宗 宗團葬으로 嚴肅하게 奉行하였습니다.

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哀悼의 심정으로 參席해 주신데 대해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慌忙한 喪中이므로 우선 紙面을 통해 感謝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佛紀2567年 12月 5日

葬儀委員會 委員長 ·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大蓮 眞愚, 門徒 一同 合掌